

훈련 불참·부상설... 김민재 무슨 일?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실점의 빌미를 내주는 실수로 비판 받으며 부상설에 휩싸인 가운데 팀 훈련에도 불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쿠팡플레이 시리즈 2차전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에서 김민재가 뛰고 있다. 연합뉴스

개막전 실책 이후 잇단 악재
獨 축구 전설 마테우스 혹평
“나폴리 시절 그 선수 아니다”
“허벅지 부상에도 출전” 설도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실점의 빌미를 내주는 실수로 비판받은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부상설'에 휩싸인 가운데 팀 훈련에도 불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뮌헨 지역지 아벤트차이퉁을 비롯한 매체에서 활동하는 빅토르 카탈리나 기자는 27일(현지시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김민재가 이날 팀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민재는 25일 열린 볼프스부르크와의 2024-2025시즌 리그 개막전에서 부진한 모습으로 우려를 낳았다.

양 팀이 1-1로 맞서던 상황에서 백패스를 상대 선수 파트리크 비머에게 빼앗겨 후반 10분 로브로 마에르에게 역전골을 내주는 데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뮌헨이 3-2로 재역전승을 거둔 점은 다행이었으나 이 장면 외에도 김민재는 실책으로 불안감을 자아냈다.

이후 독일 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로타어 마테우스는 스카이스포츠 독일판을 통해 "김민재가 나폴리(이탈리아)에서 한 것처럼 플레이하는 게 불가능하다. 뮌헨에서 보여준 플레이는 전혀 다르다"며 공개 비판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현지 매체에선 김민재가 경미한 허벅지 부상을 안고 볼프스부르크전에 뛰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훈련 불참 소식이 이어지면서 '부상설'에 힘을 실는 모양새다.

김민재는 볼프스부르크전에 선발로 나섰다. 후반 36분 에릭 다이어로 교체돼 나간 바 있다.

그는 다음달 5일 팔레스타인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홈), 오만과의 2차전(원정)에 나설 국가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몸 상태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뮌헨은 (한국시간)9월2일 0시 30분 프라이부르크와 리그 2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나란히 3-1 승리



신네르·알카라스, US오픈서 남자 단식 2회전 동시 진출

안니코 신네르(1위·이탈리아)와 카를로스 알카라스(3위·스페인)가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7500만 달러·약 997억 원) 남자 단식 2회전에 나란히 진출했다.

올해 호주오픈 챔피언 신네르는 2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남자 단식 1회전에서 매켄지 맥도널드(140위·미국)를 3-1(2-6 6-2 6-1 6-2)로 제압했다.

이어 열린 경기에서는 올해 프랑스오픈과 윌블던을 휩쓴 알카라스가 리 투(186위·호주)를 역시 3-1(6-2 4-6 6-3 6-1)로 꺾고 2회전인 64강에 올랐다.

올해 앞서 열린 세 차례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나눠 가진 둘은 이번 대회에서 계속 이길 경우 4강에서 만나게 된다.

신네르는 지난 3월 도핑 양성 반응이 나왔던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알카라스는 이달 초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신시내티오픈 2회전에서 탈락하는 등 다소 주춤한 분위기였으나 일단 US오픈

1회전을 무난히 통과했다. 신네르는 엘릭스 미컬슨(49위·미국), 알카라스는 보틱 판더잔홀프(74위·네덜란드)와 각각 3회전 진출을 다룬다.

이날 남자 단식 1회전 경기에서는 US오픈 사상 최장 시간 기록이 나왔다.

대니얼 에번스(184위·영국)와 카렌 하차노프(22위·러시아) 경기에서 에번스가 3-2(6-7(6-8) 7-6(7-2) 7-6(7-4) 4-6 6-4)로 이겼는데 5시간 35분이 걸렸다.

종전 US오픈 최장 시간 경기는 1992년 스테판 에드베리(스웨덴)이 마이클 창(미국)을 3-2(6-7(3-7) 7-5 7-6(7-3) 5-7 6-4)로 꺾을 때 나온 5시간 26분이었다.

여자 단식에서는 세계 랭킹 1위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가 카밀라 라키모바(104위·러시아)를 2-0(6-4 7-6(8-6))으로 꺾었다. 시비옹테크는 2회전에서 에나 시바하라(217위·일본)를 상대한다.

여자 단식 1회전에서는 '빅 매치'들이 성사됐다. 오사카 나옴이(88위·일본)가 엘레나 오스타렌코(10위·라트비아)를 2-0(6-3 6-2)으로 제압했고, 2020년 호주오픈 우승자 소피아 케닌(54위·미국)은 에마 라두카누(72위·영국)를 2-1(6-1 3-6 6-4)로 따돌렸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KIA 마지막 승부수... 대체 투수 스타우트 영입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7년 만의 한국시리즈 직행을 향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KIA 구단은 턱관절 수술로 전력에서 이탈한 투수 제임스 네일의 대체 외국인 투수로 에릭 스타우트(31·사진)를 영입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스타우트는 연봉 4만5000달러를 받는다.

미국 출신 좌완인 스타우트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2시즌,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6시즌을 뛰었다.

최근까지의 대만프로야구에서 두 시즌 동안 활약했다. 대만 중신 브러더스 소속으로 올해 20경기에 등판해 10승 5패, 평균자책점 2.77을 기록했다.

19경기에 선발 등판해 113%이닝을 던졌다. 바리크 통산 성적은 1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7.30, 마이너리그 성적은 16승 12패, 14세이브, 평균자책점 4.63이다.

KIA 구단은 스타우트가 시속 140km대 중후반의 속구와 슬라이더의 변형 구종인 스위퍼, 컷 패스트볼, 체인지업을 던

지며 대만프로리그에서 9이닝당 9.3개의 높은 탈삼진율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